

국별 리포트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²	G D P	10,397억 달러(2010년)
인구	112.5백만 명(2010년)	1인당 GDP	9,242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12.4(2010년 말)

- 멕시코는 광활한 국토(한반도의 9배)와 풍부한 부존자원(석유생산 세계 7위, 은 생산 세계1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국가임.
- NAFTA 출범 이후 북미시장 접근성 증대에 힘입어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여 왔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투자적격등급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 심화로 인해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최근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3.2	1.5	-6.1	5.5	4.9
재정수지 / GDP	0.0	-0.1	-2.3	-2.8	-1.7
소비자물가상승률	4.0	5.1	5.3	4.2	3.9

자료: IMF, EIU

□ 2009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 회복

-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창궐하여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2009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중남미 최저치인 -6.1%를 기록함.
- 미국(멕시코 총수출의 80%, 외국인직접투자의 50% 차지)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미국 거주 멕시코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도 감소함에 따라 내수도 위축됨.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도 절반 이하로 급감함.
-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2009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회복세를 보이면서 5.5%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 미국 금융위기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2008년 말에는 폐소화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월별 물가상승률이 6.5%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위축,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대미 수입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2008~09년 소비자물가상승

률은 각각 5.1%와 5.3%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멕시코 중앙은행 (Banxico) 물가 목표수준인 2~4%를 소폭 상회하는 4.2%를 기록하였으나, 경기회복세 둔화와 폐소화 강세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

□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재정적자 크게 확대

- 그동안 균형수준을 유지해온 재정수지는 2009~10년 경기 침체의 심화를 막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관련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GDP대비 2.3~2.8%에 이르는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와 공공부채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재정수입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2010년 하반기 이후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미경제 의존 지속

- 대미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으나, 멕시코 총수출의 89%, 총수입의 62% 정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따라서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멕시코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미국과의 경제 동조화현상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 정부는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다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미비로 원유 생산량 감소

-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산유국이며, 미국 총 원유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0위의 원유수출국임.
- 그러나 멕시코는 2004년 380만 b/d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원유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부진, 칸타렐(Cantarell) 유전의 매장량 축소 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9년 내 원유 수입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
- 멕시코의 총수출에서 원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원유 부문이 멕시코의 경제성장과 정부 재정수입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멕시코 석유공사(PEMEX)의 투자 여력 확보,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협력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이 요구되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개혁 추진이 계속 지체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NAFTA 회원국으로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한편,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국가로 북쪽으로는 미국과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멕시코는 NAFTA로 인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EU, 중남미 G3 국가 등 전 세계 42개국과 1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 EU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및 물류거점으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음.

□ 풍부한 부존자원과 인구 1억이 넘는 내수시장 보유

-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10위의 원유 수출국가로서 2010년 말 기준 원유 매장량은 104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12.7Tcf에 달하는 등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함.

- 또한, 멕시코는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10,397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며, 멕시코 인구의 55%가 25세 이하인 매우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고 인구 증가율도 높아 향후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국가신인도 제고와 거시경제 안정 유지

- 과거 대내 지향적 수입대체산업화(ISI) 발전모델을 포기하고 대외 지향적 수출주도 발전모델로 전환한 이래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하였고 거시경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깔데론 정부도 폭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장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재정, 수출, 환율, 외채 등 거시경제 전반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점진적 개혁정책 추진

- 깔데론 정부는 연금, 조세, 에너지, 노동부문 등 4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폭스 정부와 달리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점진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3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경제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2007년 9월에는 거대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협조로 조세개혁법안의 의회통과를 이끌어 내었음.

□ IMF와 72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신규 체결

- 멕시코 정부는 외환위기 예방책의 일환으로서 2009년 4월 IMF에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를 신청, 첫 수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3월 IMF와의 차관 계약을 갱신하였음.
- 또한,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월 미국연방은행(FRB)과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이 만료됨에 따라 세계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유동성위기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IMF와 72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신용공여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이는 IMF의 역대 신용공여액 중 가장 큰 규모임.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8,977	-16,349	-6,289	-5,690	-19,383
경상수지 / GDP	-0.9	-1.5	-0.7	-0.5	-1.6
상 품 수 지	-10,074	-17,261	-4,602	-3,121	-8,585
수 출	271,875	291,343	229,783	298,361	351,769
수 입	281,949	308,603	234,385	301,482	360,354
외 환 보 유 액	87,192	95,300	99,858	120,542	143,072
총 외 채 잔 액	192,764	203,984	205,401	212,234	218,106
총외채잔액 / GDP	18.6	18.6	23.3	20.4	18.5
D. S. R.	12.3	12.1	14.9	13.5	11.4

자료: IFS, EIU

□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

-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최근 수년간 상품수지 적자확대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의 -0.7%인 63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됨.
- 2010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급증하였으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수출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소폭 축소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한 57억 달러 (GDP의 -0.6%)를 기록하였음.

□ 적극적인 외환 확보 노력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 멕시코 정부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외환위기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외환보유액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 확보 정책에 힘입어 2010

년 외환보유액은 1,205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과 더불어 급락세로 전환되었던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1달러당 12페소 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대규모 FDI 유입 지속

- 멕시코는 개도국 중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은 세계 4위의 FDI 유치국가로서 최근 수년간 매년 200억 달러 내외의 FDI를 유치하고 있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악화로 FDI금액이 전년대비 47%감소하였음. 2010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투자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 연간 FDI 유입액 : 224억 달러('05) → 199억 달러('06) → 274억 달러('07) → 237억 달러('08) → 125억 달러('09) → 177억 달러('10)

□ 외채규모는 양호한 수준 유지

- 경제성장과 수출증가 그리고 브래디 본드에 대한 조기상환 등으로 총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2009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외채 규모는 소폭 증가함.
- 그러나 2010년 말 현재 총 외채규모는 GDP의 20.8%인 2,090억 달러, D.S.R.은 13.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06년 12월 깔데론 정부 출범

- 2000년 7월 제도혁명당(PRI)의 71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이 종식되었고,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7월 실시된 대선에서 전임 폭스(Vicente Fox) 정부에서 에너지장관을 역임하고, 친미적 시장경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PAN)의 깔데론 후보가 35.8%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됨.
- 2위를 차지한 민중혁명당(PRD)의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후보가 광범위한 개표 부정이 이뤄졌다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함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깔데론 정부가 출범 직후 강력한 마약범죄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취임 초기에는 높은 지지율을 확보함.

□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개혁정책 추진 난항 예상

- 마약범죄와 연관된 치안불안과 신종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 깔데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여 2009년 7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야당에게 참패하여 다수당의 자리를 제도혁명당에 내주게 됨.
- 또한, 2010년 7월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12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야당인 제도혁명당이 승리하였음. 이로 인해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됨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던 개혁정책의 추진 향배가 불투명해졌음.

2. 사회동향

□ 빈부격차와 치안불안 문제 상존

-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중부와 중산층은 깔데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부와 저소득층은 오브라도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치안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강력한 마약 범죄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 지속

- 깔데론 정부는 3대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목표로 3만 여명의 군경을 주요 마약 카르텔 활동지역에 파견하여 강력한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주요 마약 카르텔 수뇌를 사살 또는 체포하는 등 정부의 마약 소탕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 카르텔과 군경간의 유혈 충돌과 마약 카르텔간의 세력 확장을 위한 유혈 폭력사태로 인해 매년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마약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3. 국제관계

□ 위키리스크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대미관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

- 2011년 3월 19일, 駐 멕시코 미국 대사인 까를로스 파스쿠알이 위키리스크의 외교서신 폭로로 인한 비판이 지속되자 사임함. 파스쿠알이 현 정부의 마약 밀수 조직 소탕 작전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점이 포착되어 멕시코 정부가 미국 측에 대사 경질을 요구하였음. 깔데론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정간섭은 불허한다는 발언으로 불쾌감을 드러냄.
- 그러나 깔데론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캐나다와의 기존 협력관계 강화 및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번 스캔들 뿐만 아닌 마약거래,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미국 주도의 반조직범죄 협동 작전으로 친미 성향의 깔데론 정부와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한편, EU와 포괄적 협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PEC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EU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1994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OECD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 11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0년 1월 G20 예비회의를 주최하는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기관명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B2	B2
OECD	3등급	3등급
S&P	BBB(stable)	BBB(stable)
Moody's	Baa1(stable)	Baa1(stable)
Fitch	BBB(stable)	BBB(stable)

- 멕시코는 신중한 외채관리정책과 건실한 거시경제 운영, 균형재정 유지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세계 3대 민간신용평가기관인 S&P, Fitch, Moody's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 그러나 교역의존도가 높은 미국경기의 침체와 신종플루 발생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속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과 세원 축소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2009년에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Fitch와 S&P사는 조세개혁의 의회 통과, 칼데론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을 근거로 2007년에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BB+로 1단계 상향조정했음. 그러나 2009년 11월과 12월에는 재정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전망 등을 이유로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 OECD도 2009년 7월에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네덜란드 Atradius: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월 26일 (북한과는 1980년 9월 19일)

□ 주요협정: 문화협정('66), 무역협정('66), 경제및과학기술협정('77),
일반사증면제협정('79), 과학협력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정('94),
범죄인인도조약('96),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
투자보장협정('00), 세관협력협정('05), 형사사범공조협정('0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멕시코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9,090	7,133	8,846	LCD, 영상기기, 철강관
수 입	1,049	971	1,521	통신기기, 연제품, 아연광
합 계	10,139	8,104	10,367	

자료: 한국무역협회

-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1위 수출 상대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임.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출은 1984년 2,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0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그러나 2009년에는 양국 모두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수출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수출과 수입은 각각 71억 달러와 9.7억 달러로 전년대비 수출은 21.5%, 수입은 7.4% 감소하였음.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여 총 교역규모는 10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1위 수출 상대국(중남미 수출 362억 달러의 24.4%인 88억 달러)이며, 수입은 3위(중남미 수입 146억 달러의

10.4%인 15억 달러; 브라질, 칠레, 멕시코 순), 무역수지 흑자 1위(중남미 흑자 215억 달러의 34.0%인 73억 달러)임. 한편, 한국은 멕시코의 27위 수출 대상국이며 3위 수입 대상국임.

- 우리나라의 對 멕시코 투자는 2010년 말 기준 183개 법인에 투자금액은 10억 달러로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중남미 지역 투자대상국임.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 3사와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및 최근 POSCO의 철강생산 관련 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멕시코 경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10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채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으나, 경기침체와 마약문제 심화 등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경제개혁정책 추진도 지연되고 있음.
-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정부 차입 증가로 외채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확보 노력으로 2010년 외환보유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IMF와 72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멕시코는 경제개혁과 마약문제 해결의 문제가 남아있으나, 거시경제 전반이 중남미 국가 중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관리 노력과, 물가안정 정책 등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한 B2등급을 부여하고자 함.

문의 : 조사역 최철영(☎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